

선·후배, 동료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8대 노동조합 대의원에 입후보한 강선구입니다.

저는 제17대 대의원으로 활동하며 노동조합 집행부와 동료 대의원들과 협력하여 대의원 관련 규약 개정을 통해 더 선진화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대의원이 현장 조합원의 의사를 더 잘 대변하도록 대의원 선거구를 직급·직능별로 나누고 선거구별 조합원 수에 비례하는 대의원을 선출하도록 제도가 개선되었습니다. 앞으로 조합원의 의사를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는 대의원회 구조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희망합니다.

대의원의 기본 역할은 조합원을 자주 만나는 것입니다. 노조의 방침과 계획을 조합원에게 전달하고 조합원의 입장을 모아서 다시 집행부에 전달하는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와 조합원을 연결하는 중간고리로서 대의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대학의 상황은 오늘이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모르는 암울한 상황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미래는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불안정하고 두려운 미래입니다. 의사결정권자들의 역량, 행위 능력이 더 심화하고 있는 대학 위기에 대한 극복 방안을 제시하고 구성원들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우리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그릇된 결정으로 우리의 삶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갈등과 대결의 길이 아닌 화합과 타협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구성원 간 대립과 갈등을 양산하고 시대의 흐름을 거스르며 대학 발전에 역행하는 제도와 관행은 근절되어야 합니다. 구성원들이 성심을 모아 대학 발전에 함께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법인과 대학 본부와 구성원들이 노력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은 우리의 직장인 대학과 조합과 조합원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존재합니다. 각종 현안이 우리 조합원들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하나가 되어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삶의 터전을 지켜야 합니다. 단결하여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합니다.

저는 조합의 발전에 작은 밑거름이 되고자 대의원에 입후보하였습니다. 조합원 여러분의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 조합원의 목소리를 전달하여 조합원들의 이해와 요구가 노동조합과 대학의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대학의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법인, 대학 본부, 대학 구성원의 역할을 고민하고 노동조합을 통해 반영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2021. 6. 17.

대의원 4급 권역 입후보자 강선구 드림